올 첫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

해남서 70대 숨져…광주 1명도 감염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 의심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대 병원은 11일 다리 통증 ·설사 증세로 치료 중인 홍모(여·59·광주시 북구 운암동)씨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소 B형 간염과 간경화를 앓고 있던 홍씨는 지난 4일 전북 시장에서 구입한 회와 고막을 먹고 다리 통증과 설사 증세를 호소해 이틀 뒤인 6일 전남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박모(70·해남군 황산면)씨가 집에서 맛조개를 손질하던 중 손에 상처가 난 뒤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 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 10일 숨졌다.

질병관리센터 전염병감시팀 박옥(여·36) 팀장은 "57도 이상 끓여 익혀 먹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의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지난 1979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88명이 발병해 44명이 사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2004년 10명(사망 6명)▲2005년 11명(〃 4명) ▲2006년 13명(〃 5명)이 발병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브리오 패혈증=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이 접촉할 때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균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세균성 질환.

"로스쿨 총정원 통제 최소화 변호사 3천명이상 배출해야"

법학교수회·학장 성명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위해 총정원 통제를 최소화하고 변호사를 3천 명 이상을 배출하는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 등은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을 확보한 대학은 모두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개원 단계에서의 총정원은 최소한 법조인 배출 3천 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로스쿨의 도입은 학제 개편의 의미를 가지므로 존치되는 학부 법학전공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예비시험제도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법조 진출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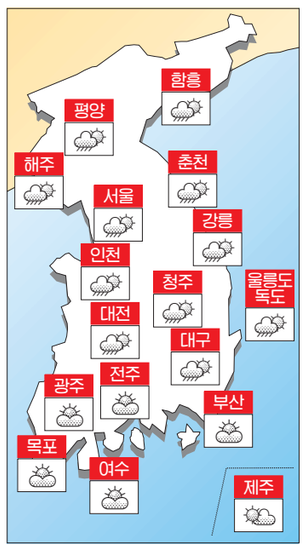
이들은 또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당연히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구름꽃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다.

7월 12일 (음 5월 28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1~29℃
목 포	구름 많음	21~27℃
여 수	구름 많음	20~26℃
완 도	구름 많음	20~27℃
구 례	구름 많음	21~29℃
해 남	구름 많음	20~28℃
장 흥	구름 많음	20~27℃
고 흥	구름 많음	20~28℃
순 천	구름 많음	20~29℃
영 광	구름 많음	21~29℃
진 도	구름 많음	20~29℃
전 주	구름 많음	21~29℃
남 원	구름 많음	20~29℃
흑산도	구름 많음	19~2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1:42 --:-- 썰물 05:33 17:27
여 수 밀물 07:00 20:01 썰물 01:17 13:10

▲해뜸 05:27 ▲해짐 19:49 ▲달뜸 02:33 ▲달짐 18: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 씨						
최저/최고	22/29	22/28	23/27	22/29	21/30	22/31

전남대 개발 생균 비브리오 백신 균주

5~6년 임상실험 후 상품화

전남대 의대 이준행 교수팀은 지난해 7월 생쥐실험을 통해 얻은 돌연변이 균주(菌株) 'CMM 781'이 백신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CMM 781'은 세계 최초의 약독화 생균 백신 균주이며, 특허권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갖고 있다.

'CMM 781'은 세포 독성 및 용혈(溶血·적혈구의 세포막이 파괴돼 헤모글로빈이 혈구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현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야생 균주에 비해 1천 배나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동물에 치사량의 패혈증 비브리오를 감염시켰을 때 대조군의 쥐들은 18시간 이내에 모두 사망했지만, 'CMM 781' 균주로 면역시킨 쥐들은 강한 항체 덕분에 모두 생존했다. 하지만 백신은 앞으로 5~6년 동안 비임상-임상 과정을 거쳐야 상품화된다.

이 교수팀은 또 'EDTA'라는 이름의 화학물질로 어패류를 씻으면 균이 완전히 죽는 것도 발견했으며, 비브리오 패혈증을 진단하는 'PCR' 개발에도 성공했다. PCR은 예전에 4~5일 걸리던 진단시간을 수 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화학교 중재 요구 농성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동문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중재'를 요구하며 광주시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성 추행과 학생들의 교장실 난입 및 고소 사건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유명 피서지 임시버스 운행

금호고속 내일부터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광주와 대천 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를 왕복하는 임시버스 운행을 한다.

임시버스를 운행하는 기간은 대천 해수욕장·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의 경우 13일부터 8월15일까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21일부터 8월19일까지다.

광주에서 보령을 거쳐 대천해수욕장까지 가는 버스는 광주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대천발 오후 2시45분과 오후 5시45분 총 1일 2회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보령 1만1천300원, 대천 1만2천300원이며 소요시간은 보령 2시간30분, 대천 2시간40분이다.

완도 명사십리행 버스는 광주발 오전 5시45분을 시작으로 오후 3시50분까지, 명사십리발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일 8회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1만3천900원이며 소요시간은 약 3시간이다.

영광 가마미행 버스는 광주발 오전 7시45분 첫 운행을 시작으로 오후 5시45분까지, 가마미 해수욕장발 버스는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1일 9회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6천400원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광주~강릉 노선도 13일부터 개통돼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광주발 오전 9시, 강릉발 오후 3시30분이며, 소요시간 5시간 30분, 요금은 2만4천300원이다.

홈페이지는 www.Kumhoexpress.co.kr, 안내전화 062-360-8114.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병원-택시기사 '검은 거래'

허위진료비 5억 청구 병원 8곳·30여명 수사

광주 북부경찰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손해보험회사로부터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43)씨 등 광주시내 택시 운전사 30여 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위장해 H의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허위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또 택시 운전사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꾸며주거나 입원·치료도 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한 H·Y·S 병원 등 광주지역 8개 정형외과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손보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이 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당 5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허위로 탄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진료비 등을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입 수시 1학기 오늘부터 원서접수

광주·전남 1,566명 선발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4년제 대학의 원서 접수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선대 등 상당수 대학이 올해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했지만, 목포대·광주대 등 광주·전남지역 13개 대학은 올해도 수시 1학기 모집을 통해 일반전형 826명, 특별전형 730명 등 모두 1천556명을 선발한다. 전국적으로는 90개 대학에서 1만4천138명을 뽑는다.

이번 수시 1학기 전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일반전형 인문계열의 경우 목포대·광주대·대불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호남대 등 8곳이 학생부를 100% 반영한다. 순천대·남부대는 학생부 80%, 광주여대는 학생부 60%를 각각 반영한다.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순천대·광주여대·남부대·호남신학대가 각각 20% 이상 반영한다.

일반전형 자연계열의 경우 목포대·광주대·대불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호남대 등 8곳이 학생부 100%를, 순천대·남부대는 학생부 80%, 광주여대는 학생부 60%를 각각 반영한다.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순천대·광주여대·남부대가 각각 20% 이상 반영한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일반전형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70명)과 국제학부 특별전형(30명)을 각각 실시하고 1단계는 서류평가 60%, 2단계는 영어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외 자세한 모집 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 정보센터'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올 추석 열차표 24~26일 예매

올해 추석(9월25일) 연휴 기간 중 열차 승차권이 오는 24~26일 예매된다.

예매는 특별수송기간인 9월21일~27일까지로 인터넷과 창구를 통해 각각 절반씩 판매한다.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역 창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씩이다.

1인당 구입 승차권은 편도 6매(왕복 12매). 인터넷으로 예약한 철도승차권의 결제는 2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8월5일까지 구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문의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